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미국의 수입 물가, 9월~11월 기간에 늘어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19만8천건으로 대폭 감소
- NYT: 트럼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, 식품 가격 오른다

[미국 금융]

- WSJ: 골드만 삭스 수익, 껑충 올라
- Bloomberg: 모건 스탠리, 채권 발행 수수료로 투자 뱅킹 예상치 상회

[뉴욕시]

- Bloomberg: 맨해튼 임대, 최고치 근접...주거비 부담 위기

[물류]

- WSJ: 글로벌 해운사 Maersk, 홍해 항해 재개

[미중 무역]

- Reuters: 연방 의회 25억불 규모 '핵심 광물' 비축 법안 도입

[주택]

- WSJ: 미 12월 주택 판매는 5.1%로 뛰어...2년래 최대 증가

[오일]

- Bloomberg: 이란 사태에 트럼프 대응 보류하자 오일 하락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US import prices increase from September to November 미국의 수입 물가, 9월~11월 기간에 늘어

-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기간에 수입 물가 가격은 0.4% 증가했다. 연방 셋다운으로 두 달을 묶어서 집계한 것이다.
- 수입 물가는 11월까지의 12개월간 0.1% 상승했다.
- 구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9월과 11월 기간에 2.5% 상승했고, 12개월로는 0.9% 올랐다.
- 수입 식품 가격은 10월에 1.4%, 11월에 0.7% 증가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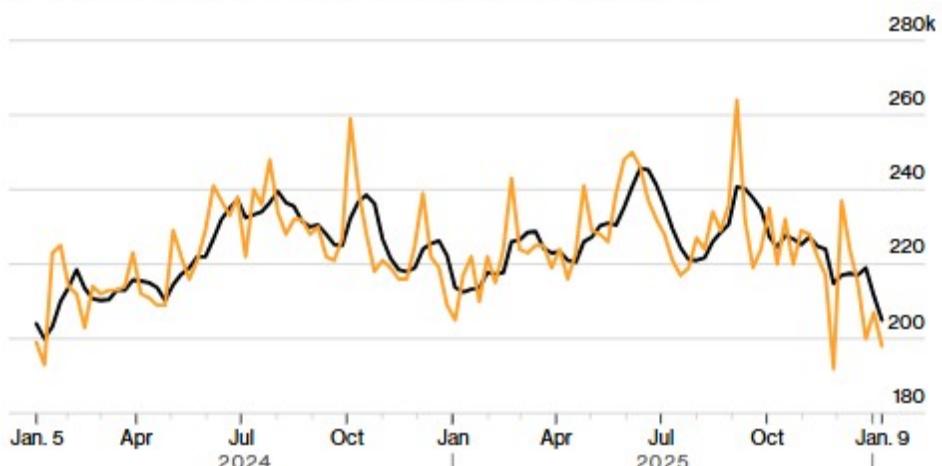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Fall to 198,000, Below All Estimate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19만8천건으로 대폭 감소

-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예상외로 낮았는데 지난 11월 이래 가장 낮았다.
- 연방 노동국의 목요일 통계에 따르면 1월 10일 끝나는 주에 9천 건 줄어든 19만 8천 건의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.
- 실제 지난 수년간 20만건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흔치 않다.
- 그리고 변동성 배제하기 위해 4주 평균 청구건수는 지난주에 2만 5천 건으로 지난 2년래 가장 낮았다.

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Following Holiday Volatility

The 4-week moving average declined to a two-year low

Initial jobless claims / Initial jobless claims 4-week moving average



Source: US Department of Labor

기사

NYT: Despite Trump's Claims, Grocery Prices Are Rising

트럼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, 식품 가격 오른다

- 트럼프는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. 이번주 화요일에 해당 가격이 빨리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날씨, 공급 상황, 관세, 노동 시장, 소비자 행태 변화 요인으로 인해 식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.
- 예컨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16.4% 올랐으며 커피값은 19.8% 상승했다. 상추는 7.3%, 냉동 어물은 8.6% 상승했다.
- 가정용 식품비도 지난해와 비교 2.4% 올랐으며 작년 12월만 해도 0.7% 올랐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Goldman Sachs Profit Rises on Jump in Dealmaking

골드만삭스 수익, 껑충 올라

- 골드만삭스의 4분기 수익이 12% 상승한 46억2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투자 은행과 시장 부서의 연간 매출은 기록적이다.
- 이 은행은 M&A 등 거래 성사가 크게 늘어나 투자 뱅킹 매출이 47%로 크게 상승했다.

- 미국의 인수합병 활동도 지난해에 44% 늘어나 이 은행의 4분기 투자 뱅킹 매출이 25% 늘어났다.

기사

Bloomberg: Morgan Stanley Tops Investment-Banking Forecast on Debt Haul

모건 스탠리, 채권 발행 수수료로 투자 뱅킹 예상치 상회

- 모건 스탠리의 채권 부문의 매출이 93%나 상승해 월가에서 단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해당 사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성과의 해로 마무리 되었다.
- 채권 발행 대행 매출은 4분기에 7억8천5백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6억3천5백억 달러를 상회했다.
- 이로 인해 전체 투자 뱅킹 수수료는 지난해보다 47% 늘어난 24억1천억 달러를 기록했다. 이 회사의 연간 순수익도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.

기사

[뉴욕시]

Bloomberg: Manhattan Rents Hover Near Highs in Sign of Affordability Crunc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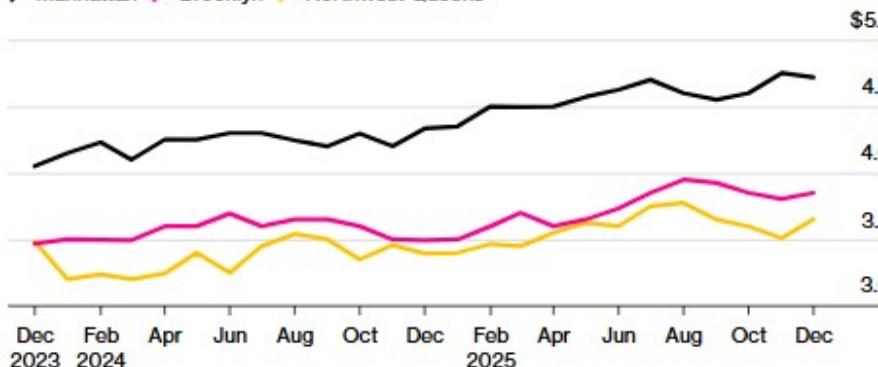
맨해튼 임대, 최고치 근접...주거비 부담 위기

- 올 겨울에도 맨해튼 아파트 임대 수요자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. 임대료가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지난 12월 계약한 새로운 임대 평균 가격은 \$4,720로 그 전년도 동월에 비해 9%나 상승했다.
-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임대 시장이 둔화되는데 그러나 지난해에 맨해튼의 경우 오히려 임대 경쟁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. 재고 물량도 전년도에 비해 16% 줄어들어 팬데믹 이후로 연간 비율로 가장 크게 줄었다.

Manhattan Rents Hovered Near Record Highs in December

New leases in Manhattan rose annually to the second-highest price on record

✓ Manhattan ↗ Brooklyn ↘ Northwest Queens



Source: Miller Samuel Inc. and Douglas Elliman

[물류]

WSJ: Maersk to Resume Sailing Through Red Sea
글로벌 해운사 Maersk, 홍해 항해 재개

- 덴마크 글로벌 해운사인 Maersk는 점차 상황이 안정되어 곧 홍해와 수에즈 운하 항해를 재개할 예정이다. 그러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.
- 이 같은 결정은 최근 2차례에 걸친 성공적인 홍해 항해가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중동, 인도, 미 동부 등이 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.
- 그런데 이 같은 발표후에 Maersk 주가는 7.5%, 독일 해운사 Hapag-Lloyd 는 3.9% 떨어졌다.

[미중 무역]

Reuters: US lawmakers introduce bill to create \$2.5 billion critical-minerals stockpile

연방의회 25억불 규모 핵심 광물 비축 법안 도입

- 오늘 목요일 미 양당 의원들은 핵심광물의 시장 가격 안정화와 미 국내 채굴과 제련을 장려하기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관련 비축을 추진하는 법안을 도입했다.
- 이는 중국이 최근 전기차와 첨단 무기 생산에 핵심적인 리튬, 니켈,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.
- 예를 들어 중국의 리튬 과잉 공급으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Albemarle는 2024년에 미국 확장 계획을 중단했다,. 그리고 미 국방부는 네바다주의 희토류 제조사인 MP Materials사의 최대 투자 지분을 갖게 되었다.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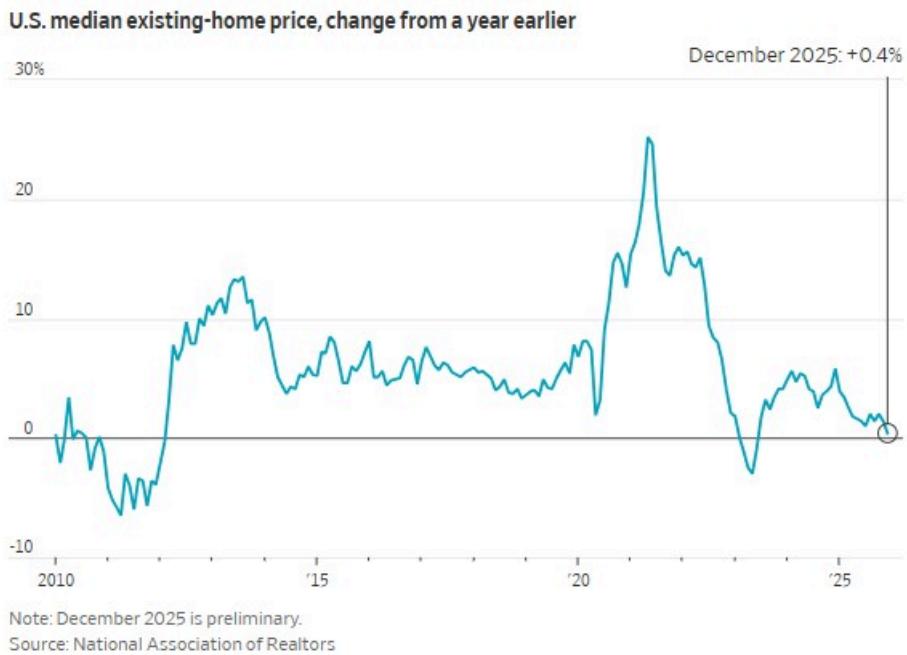
[주택]

WSJ: Home Sales in December Jump 5.1%, Biggest Gain in Nearly 2 Years

미 12월 주택 판매는 5.1%로 뛰어...2년래 최대 증가

- 지난해에 미 주택 판매는 놀랄만한 강세 모멘텀으로 마무리되었다. 12월에 주택 판매가 5.1% 상승해 지난 2년래 최고치였다. 그러나 이 같은 12월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만에 큰 어려움을 겪은 주택 시장이었다.

- 물론 이 같은 12월 현상은 모기지율이 완화된 데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.
- 월간 단위로 12월 성적은 지난 2024년 2월 이래 판매가 가장 컸으며 4개 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어제 밝혔다.

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Tumbles After Trump Signals US Response to Iran Is On Hold

이란 사태에 트럼프 대응 보류하자 오일 하락

-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자 오일 가격은 지난 10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.
-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주에 11% 껑충 뛴 후에 4% 이상 빠져 배럴당 64달러를 기록중이다.
- 트럼프는 이란이 국내 시위자들에 대한 살해를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가능성이나 이란 생산과 오일 운송 항로에 대한 차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.

기사